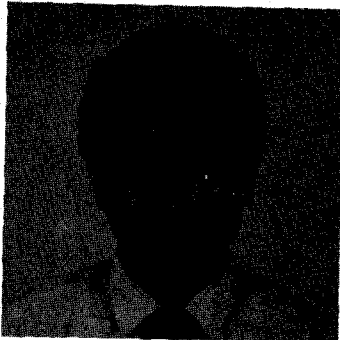


계열화사업 공익사업으로 해야 한다

□ 취재/김용화 기자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육계산업에 계열화사업이 추진되어 90년초에도 순조롭게 정착을 보여 가고 있다.

89년에는 병아리 생산이 닭고기 소비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닭값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이번달으로 계열화 사업이 다소 약화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이라는 대명제하에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다.



유림상사(대표 김풍림)는 현재 천안을 중심으로 하여 온양, 둔포, 평택, 발안에 이어 양계의 불

모지로 알려진 강원도 화천군에 계약사육농가를 선정 광범위한 생산체제에 돌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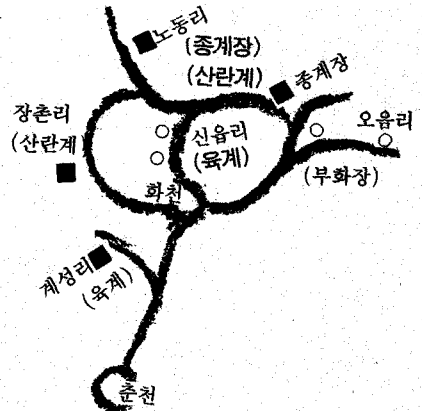
89년2월에 계열화업체로 출발한 유림상사는 종계확보 및 도계장 건립추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계열주체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미 육계사육이 질병으로 인하여 중부지방에서는 어떤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유림상사는 기존 계약사육농가를 산속 깊은 강원도로 옮기려는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강원도를 선정 고향인 화천군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지난 2월28일 화천군 농촌지도소 강의실에서 강원도 행정담당자 및 유관기관, 사육자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림 육계계열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화천지역의 농가소득원은 주곡생산과 옥수수재배 및 산나물 채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화천군을 중심으로한 유림 계열화 단지



영세하여 1농가당 소득이 년2백~3백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유림상사가 펼치고자하는 계열화 사업 목적은 농촌 잘살기에 두고 있어 사육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농업의 소득이 절대 빈약한 화천군에서는 계열화 사업을 군내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취지하에 현

재 닭고기를 군납하고 있는데 물량확보가 어려워 유림계열화업계와 연계하여 도계장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계약사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4-H 회원 등 주로 젊은 층으로 되어 있어 활기를 띠고 있다. 화천은 김사장의 고향이기도 하여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성의 성격보다도 농촌소득을 늘리는 방안으로 사회사업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강원도 축정과 서재원 과장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현재 정부가 육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을 강원도에 유치하게 되어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 박영인 회장은 육계생산비의 30% 이상 50%까지 낮추어야 수입개방이 되어도 정착이 가능해진다면 계열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림상사는 금년중에 농가순수익을 5억원, 91년에는 10억원을 목표로 하여 총 비수매량의 46%, 옥수수 수매량의 39%까지 끌어 올려 농가 소득을 높여줄 계획이다.

특히 부산물로 생성되는 계분처리하는 전량 퇴비원으로 재활용하여



고냉지 농업에 전량 공급할 계획도 대대적으로 세우고 있다. 이는 농협과 협력하여 최근 도시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적극적인 계분을 적절히 처리하여 계약사육 농가에 직접 참여치 못하는 농민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종자 선택 및 재배방법까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90년도에 계열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여기서 나오는 계분량만도 70만평의 농경지에 비료대체원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도계장이 가동되면 부산물로 나오는 머리 및 발, 내장 등 불가식부위를 연중 평균 기온이 30℃ 이하를 필요로 하는 밍크 및 여우사육이 화천지역이 적격지인 점을 감안 사육농가가 생길 경우 무상으로 부산물을 공급하여 또한

농가소득을 높이기끔 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서서히 유기농법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음을 볼 때 양계업계의 골칫거리인 계분 재활용이 본격화되고 농업의 소득원이전무한 강원도지역에서 비교적 양계질병이 적은 강점을 이용한다면 유림육계 계열화 사업은 매우 빠른 정착이 가능해지리라고 본다.

이곳은 군사보호지역과 서울의 젓줄인 북한강의 상류지역으로 상수도 보호 문제로 계사시설이 펍 까다로운 문제점도 있으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융통성 있는 운용을 한다면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높은 만큼 유림상사는 성공적인 계열화주체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양계]**